

임채빈, 경륜황제 경쟁 마침표 찍었다

결승전 한 바퀴 선행...여유있게 우승
정종진 완벽히 제치고 새 황제 등극
누적상금·다승부분 타이틀도 싹쓸이
전문가들 "괴물이란 표현도 부족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던 경륜의 빅이벤트였지만 결과는 의외로 싱거웠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그랑프리 대상경주에서 우승 트로피는 임채빈의 것이었다. 임채빈은 26일 광명돔에서 열린 '20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결승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한 바퀴 선행으로 치고 나가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여유있게 선두를 지키며 우승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별다른 고비도 없어
임채빈의 기세는 금요일 열린 그랑프리 예선부터 거칠 것이 없었다. 전국을 강타한 한파에서도 200미터 랩타임에서 10초59을 기록해 경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토요일 경주와 일요일 경주에서도 별다른 고비 없이 정상까지 순탄한 질주를 계속했다. 일부 경륜 팬들이 혹시나 기대했던 복병 선수가 일으키는 극적인 이변도 없었고 절치부심했던 정종진의 명예회복 드라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그랑프리 대상 경주의 우승으로 그동안 임채빈과 정종진이 벌이던 '경륜 황제' 경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임채빈이 이론의 여지없이 새로운 경륜



그랑프리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는 '경륜황제' 임채빈. 26일 열린 '20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임채빈은 새로운 경륜 최강자로써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최강자로서의 행보를 펼치게 됐다. 임채빈은 그랑프리 우승 외에 올해 누적상금과 다승 부분 타이틀도 모두 휩쓸었다. 올 시즌 임채빈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훈련원 때부터 최초 조기졸업, 지난해 최단시간 특선급 승급 등 신

인의 각종 기록을 세우더니, 경륜 최고 무대인 특선급에서도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경륜을 대표하는 특선급 SS반의 강자 5명을 차례로 이기며 이른바 '도장개기' 신드롬을 일으켰다. 팬들은 경륜 판도를

일순간에 뒤집은 괴물 신인의 활약에 열광했다. 오랫동안 경륜 황제로 군림했던 정종진과는 대상 경주에서 잇따라 맞붙어 한번도 밀리지 않고 모두 승리하며 황제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

불세출의 사이클 선수로 평가받는 임채빈은 대한민국 선수로는 최초로 단거리 세계대회에서 입상했다. 그가 2015년 독주경기에서 세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올해도 자신이 세운 200미터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뛰어난 기량으로 트랙 국가대표로 선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 시절인 10년 전부터 프로가 된 지금까지 정제기나 슬럼프 없이 매년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륜 전문가들은 "이쯤 되면 괴물이란 표현도 부족하다"며 "플관왕 타노스를 연상케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타고난 재능 못지않게 임채빈의 지독한 자기관리도 유명하다. 훈련의 양이나 질이 월등하다. 이번 그랑프리 경주를 위해 고향인 대구를 떠나 3주 동안 광명에서 합숙을 하며 훈련할 정도로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치밀하고 집요하다.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령인은 "지금까지 많은 경륜 스타들이 있었지만 경기력 측면만 따지면 지금의 임채빈과 비교할 만한 선수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그의 독주는 당연하고 과연 앞으로 경륜의 각종 기록들을 얼마나 갈아치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로드FC는 23일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1 로드FC AWARDS' 수상자를 발표했다. '미들급챔피언' 황인수가 최고의 파이터를 의미하는 'FIGHTER OF THE YEAR'를 수상했다. 사진제공 | 로드FC

황인수 박해진 박승모 이정현 김현우 '2021 로드FC AWARDS' 수상 영예

김대환 대표 "젊은선수들 많아 세대교체 실감"

로드FC에서 올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파이터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로드FC는 23일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1 로드FC AWARDS' 수상자를 발표했다. '미들급챔피언' 황인수(27·FREE), '페더급챔피언' 박해진(29·킹덤MMA), '우유 세계챔피언' 박승모(28·팀 지니어스), '래퍼 파이터' 이정현(19·FREE), '떠오르는 신예' 김현우(19·팀피니쉬)까지 총 5명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수상자는 팬 투표와 관계자 투표를 합산해 선정됐다. 로드F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으로 열린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시상 부문은 최고의 파이터를 의미하는 'FIGHTER OF THE YEAR', 최고의 신인에게 주어지는 'ROOKIE OF THE YEAR', 최고의 KO를 만들어낸 선수에게 수여되는 'KO OF THE YEAR', 강력한 서브미션 기술로 상대를 제압한 파이터에게 주어지는 'SUBMISSION OF THE YEAR'였다. 부문별로 3~4명의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다.

'FIGHTER OF THE YEAR'에는 황인수, 'KO OF THE YEAR'에는 박승모, 'SUBMISSION OF THE YEAR'에는 박해진이 선정됐다. 'ROOKIE OF THE YEAR'는 이정현과 김현우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대대적 세대교체가 이뤄진 로드FC다. 수상한 5명 모두 젊은 파이터들이다. 특히 신인상을 차지한 이정현과 김현우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 선수들이다.

로드FC 김대환 대표는 "황인수, 김현우, 이정현, 박승모, 박해진까지 수상자 명단을 보고 로드FC의 세대교체를 실감했다. 김현우, 이정현, 박승모는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특히 박승모는 권아슬을 비롯한 기존 라이트급 강자들과 싸워도 뒤질 게 하나도 없다"며 수상자들을 높이 평가했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2300m 2분28초4...경마 그랑프리, 행복왕자 우승

4코너 돌면서 선두...3마신차로 승리
김용근 기수와 함께 첫 그랑프리 우승

서울의 행복왕자(4세, 수, 미국, R122, 이방훈 마주, 박윤규 조교사)가 26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린 그랑프리(G I, 2300m, 제8경주)에서 우승했다. 기록은 2분 28초 4. 행복왕자는 첫 대상경주 우승을 가장 권위가 높은 그랑프리에서 거두었다. 올해로 39회를 맞은 그랑프리 대상경주

는 핸디캡 특별경마로 1982년 시작해 대상 경주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서울과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경주마들이 최장거리인 2300m 경주를 펼친다. 올해 그랑프리는 전조전격인 KRA컵클래식(G II, 2000m)에서 '코차' 접전을 벌인 미스터어플릿과 행복왕자의 재대결,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인 문학치프의 명예회복 여부로 기대를 모았다.

경주가 시작되자 청담도끼가 선두로 나섰고 뒤를 심장고동, 미스터어플릿 등이



행복왕자
뒤쫓았다. 행복왕자는 2코너를 앞두고 외곽에서 5위로 올라서며 선두권에 합류했

다. 이어 4코너를 돌아나가는 시점에서 행복왕자는 청담도끼로부터 선두를 빼앗았다. 그리고 결승선을 향한 마지막 직선주로부터 2위 그룹을 1마신 가량 앞서 나갔다. 결승선 앞 200m 지점에서 차이가 3마신까지 벌어지면서 승리가 결정됐다.

행복왕자와 호흡을 맞춘 김용근 기수는 이번 우승으로 역시 첫 그랑프리 우승의 역사를 썼다. 경주 후 김용근 기수는 "KRA컵클래식에서의 단점을 보완해 힘을 아끼며 전개해 후반 추임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생애 첫 그랑프리 우승 도전이라 간절했는데 좋은 말이 값진 선물을 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기모 반목 플라 티셔츠, 따뜻하게 올 겨울 준비 끝! 후끈후끈 반목티 4장 모두 49,800원

100% 국내산 기모 안감 기술을 사용해
부드러운 착용감과 보온성이 탁월



보온성·방풍성·실용성·패션성을 겸비한 반목 플라 기모 티셔츠는 겨울철 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인정맞춤이다. 보온성이 탁월한 기모 안감 기술을 입힌 겨울용 반목 플라 티셔츠는 겨울철 일상생활이나 등산·낚시·골프·사이클·스포츠 레저 활동시 적합한 제품으로 입는 순간부터 난로를 켜고 다니는 듯 한 놀라운 차이를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제품의 자신감으로 7일 이내 불만족 시 100% 교환·환불을 보장한다.

사이즈 95, 100, 105, 110 티셔츠 4장 세트 ₩4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션티션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

바지가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 기모원단 장착 클래식 원턱 기모바지 3장 59,800원



이질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는 바지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출퇴근시에는 정장스타일로 아웃도어 활동시에도 좋은 벨티아웃도어 크로스오버 바지는, 기능성 원단 기모안감을 적용하여 맑은 흡수후 빠르게 건조시키고 쾌적함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스관 소재로 정장용·레저용·일상복으로 모두 입을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일반 바지보다 활용성이 뛰어나다. 허리부분에 주름밴딩 장착으로 숨 쉬는 바지 기능을 추가하여 30~70대 남성들에게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 세균과 땀 냄새까지 억제하는 바지이다.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션티션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

찬바람을 완벽 차단하는 동계용 보온 아이템! 알래스카 플리스 자켓 2장 49,800원

겨울 내내 입을 수 있는 두께감 있는 플리스 자켓
양면 보아털로 더욱 뛰어난 보온성과 부드러운 감촉



목도리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플립업 알래스카 플리스 자켓은 남녀공용인 프리미엄급 아우터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및 일상복·외출복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겨울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최적의 컨디션 유지를 시켜준다. 가볍고 우수한 보온성을 자랑하는 소프트한 플리스 원단에 포근하고 부드러운 양털 느낌의 안감 적용으로 착용 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다기능 상품이다. 양쪽에 포켓이 있어서 간단한 수납과 양면 보아털 안감을 적용하여 보온성을 강화하였다.

사이즈 95, 100, 105, 110(남녀공용)
자켓 2장 ₩49,800 / 자켓 1장 ₩2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션티션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